

교회소식

7월 임원회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선교회장단 간담회가 오늘 오후 2:3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30-31일 양일간 탐수양관(소재: 불광동)에서 있습니다.

냉장고에 너무 많은 음식을 넣어두지 마십시오. 식재료를 구매하기 전에는 꼭 냉장고 안을 살펴보세요.

막 15:42-47

오늘 식당 봉사 : 정영선 홍춘숙 김애순 김경혜 안현숙 배삼순 김정훈 곽상준
 다음 주 식당봉사 : 김금순 이순정 김필순 한민경
 오늘설거지봉사 : 교회학교 교사
 다음주설거지봉사 : 청파7속
 커피 판매 봉사 : 4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2016-30

7월 24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모으로
 상의소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일 낮 예배 순서

【강림 후 제 10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10. 전능왕 오셔서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쉼 곳이며 새로운 힘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바쁘고 고된 일상으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운을 불어넣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정부패가 일상이 된 권력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자신의 과오를 권력으로 덮으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깊이 반성하며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중히 여기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호12:5,6 인도자
- ♣ 교 독 문 80. 고린도후서 4장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이형숙 권사
- 2부응 답 송 찬양대
- 2부찬 양 393. 오 신실하신 주 다 함께
- ♣ 성경봉독 행 11:19-26 I. 인도자
II. 황현성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여러고성 무너졌네 찬양대
- 말 씬 동심원의 확장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구재원 권미정 권혁순 박해경 김기성 이은정 김성우 박유경 김정훈 이진영
김준호 곽해자 김중현 성귀옥 김철수 유영남 김필순 박미연 박영희 박정윤
서원금 송동준 김진경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윤정득 이순용 김신실
이용석 이유선 이유진 이정은 이주경 안상숙 이치림 강상연 장병준 박소현
장원호 박성희 장해정 정원석 김현영 채태석 최다미 최소라 고인성 최 숙
한기택 한봉섭 허준호 홍성식 이유리 무명

감사헌금

강신철 이해경 권혁래 김해선 김혜라 박창운 허정윤 유중희 이범석 류정욱
이봉옥 이은영 임선양 신현숙 조은성 전희수 최미선 무명14

녹색꿈헌금

김정화 박재영 이현정 양승일 이미정 임설희 임승동 백혜숙 장영숙 정효진
홍소형 무명7

생일감사헌금

유정빈 장원호 박성희 최성애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방학	청파1속	김재흥	교회
안 디 옥	최경미		청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청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홍재		청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청파5속	장영숙	
에 베 소	백혜숙		청파6속	신진식	
빌 립 보	곽권희		청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청파8속	이범석	
나 사 렷	김경혜		청파9속	김인걸	
			청파10속	장영숙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휴식

봄 햇살이, 목련나무 아래
 눕고 병든 가구들을 꺼내놓는다
 비매품으로/
 의자와
 소파와
 침대는 다리가 부러지고 뼈가 어긋나
 뼈거덕거린다/
 갇혀서 오래 매 맞은 사람처럼
 꼼짝없이 전쟁을 치러온
 이 제대병들을 다시 고쳐 전장에,
 다시 들여보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의자에게도 의자가
 소파에게도 소파가
 침대에게도 침대가
 필요하다/
 아니다 그들은
 햇볕에 그냥 혼자 버려두어
 스스로 쉬게 하라
 생전 처음 집 내려놓고
 목련꽃 가슴팍에 받아 달고/
 의자는 의자에 앉아서
 소파는 소파에 기대어
 침대는 침대에 누워서

- 이영광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2부찬양	양	543.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 믿음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사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다함께: 아멘. 욕심과 걱정에 가득 차 나쁜 기운을 주변에 전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 믿음으로 자신을 채우고 살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2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정민 장로	인도자 이선화 집사

7월	1부 영접위원	이부용 박숙미			
	1부 헌금위원	하현철			
	2부 영접위원	김인걸	윤성종	박기영	주은경 김윤정 김경혜 홍춘숙
	2부 헌금위원	한완식 정경례			

믿음으로 읽는 글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

주님,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 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나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시기를 감히 청할 순 없사오나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주께 구할 일곱 가지 선물

- 보나벤투라

주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 당신 위에 머무셨듯이,
같은 성령께서 우리 위에 내리시어 일곱 가지 선물을 베풀어 주소서.

이해의 선물을 주시어, 당신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소서.
분별의 눈을 뜨게 하시어, 의로운 길을 걸어가신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용기를 주시어, 악마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게 하소서.

지식을 주시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하소서.

경건을 주시어,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두려움을 주시어, 악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따르게 하소서.

지혜를 주시어, 생명을 주는 당신 사랑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소서.

보나벤투라(1217?-1274)는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이끌면서 스승 프란체스코 성인의 가르침을 신학의 틀에 담았다. 그의 기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름지기 예수의 수난과 부활을 그대로 반영한 것” 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담겨 있다.

- 고진하 엮음 「기도필사」(지혜의샘) 중에서